

MEG, 수급차질 빚어 95달러 폭등

2004년 1월 FOB Korea 790달러로 ... 2003년 12월대비 95달러 올라

MEG가격이 1월23일 FOB Korea 톤당 785-795달러로 지난주와 동일했으나 2003년 12월26일 대비 무려 95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난주 아시아 MEG 시장은 중국의 춘절행사 및 아시아 전역의 음력설 연휴를 맞이해 소강상태를 보여 거래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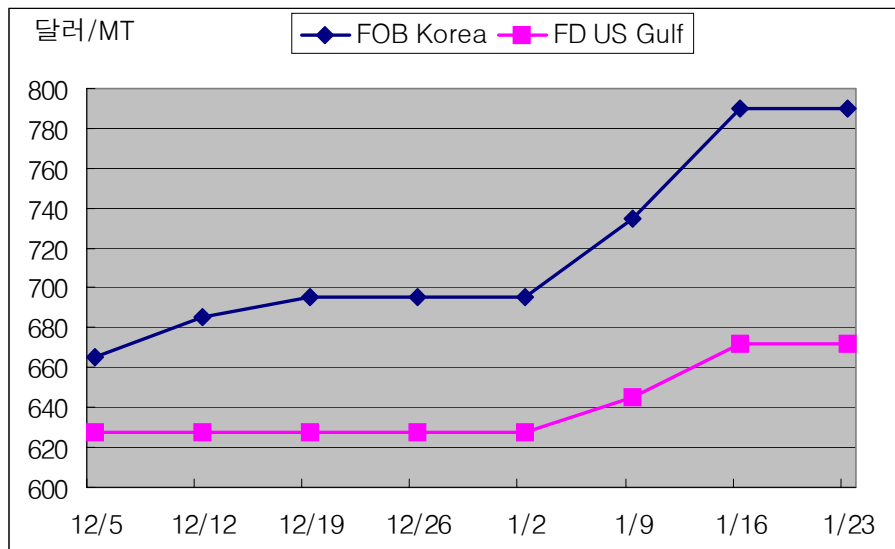
아시아 MEG 가격은 2003년 12월19일부터 2004년 1월2일까지 3주 동안 FOB Korea 톤당 695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미국 운송선박 화재 등으로 인해 수급타이트가 본격화 되면서 1월9일 735달러로 40달러 급등했다. 또 이후 1월16일에는 785-795달러로 55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MEG 시장은 중국 수요강세를 비롯해 Naphtha 가격폭등으로 인한 Ethylene 원료 가격강세에 힘입어 급강세를 나타냈으며 2003년 12월 중순 미국 Gulf 해안을 출발한 화학제품 운송선(Chemical Tanker)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급타이트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및 타이완에서 예상치 못한 플랜트 트러블이 발생함에 따라 아시아 MEG Spot 시장의 수급타이트가 심화됐다.

인도네시아 GT Petrochemical(GTPI)는 1월9일 PA(Phthalic Anhydride) No.1-2 생산라인 폭발사고로 MEG No.1 플랜트도 2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타이완 Nan Ya도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35만톤 No.3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MEG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MEG 가격은 1월23일 FD US Gulf 파운드당 30.00-31.00센트로 톤당 평균 672달러를 기록해 보합세를 형성했으며 유럽가격은 FOB Rotterdam 톤당 625-250달러로 18달러 상승했다.

<Chemical Journal 2004/01/29>